

5월의 소식

코로나의 정점이 지나고 햇살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귀화시험을 돕는 것과 장애인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출국을 위한 리서치 준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이란친구는 기초가 너무 엉망이지만 기초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책 읽기가 되지 않으니 가르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같이 왔다가 그의 딸이 아빠의 실력을 알아버렸습니다. 딸이 결국 설득해서 기초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재를 준비해서 처음부터 한글기초를 잡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 과정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민자의 문제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성인발달장애인 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참석자 숫자가 교회로 오지 않다가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참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복귀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규제가 철폐가 된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서 출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상하기로 하반기에 리서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속도가 올라가면서 양극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양극화는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갈등이 또다른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간구의 제목

1. 이란친구가 귀화시험 준비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2. 발달장애인들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3. 출국 준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토록
4. 양극화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도록

정일권 선교사